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호 [루게 제22963호] 주제99 (2010)년 1월 11일 (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훌륭히 꾸려진 강동약전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강동약전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장에서 공장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새해벽두에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공장의 로동계급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호소를 피뎠는 심장에 받아안고 총천연기세로 새해전투에 진입한 공장의 로동계급은 정초부터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림으로써 몇해사이에 공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많은 원료소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종전에 비해 무려 7배나 늘였으며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왔다.

또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공장안팎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놓았을뿐아니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서도 놀라운 전변을 가져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개건현대화된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여러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작업장마다에 준비하게 늘어난 현대적인 생산설비들과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제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CNC화를 비롯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약전기구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과감히 벌려온 결과 공장을 정보산업시대의 표준공장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공장에서도 같이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한다면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더욱 높이 발양

시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없이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는 이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부산물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만든 여러가지 견제품과 일용필수품들을 보시고 제품의 질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고있는 그들의 인민적복무정신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공장에서 특색있게 건설한 문화회관과 구내식당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문화생활정형과 후방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공장에서는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이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후방공급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공장에서는 문화회관, 정양소를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고 수천그루의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어 공장구내를 공원화한것을 비롯하여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확립하였을뿐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후방기지들도 튼튼히 꾸려 종업원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화려하게 건설된 문화회관과 구내식당을 돌아보시고 수도의 극장이나 옥류관에 못지 않게 활활활만금 훌륭히 꾸린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담하고 정결한

문화후생시설들이 그흔히 갖추어지고 각종 과일나무들이 숲을 이룬 이 공장은 마치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 공장일꾼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동약전기구공장은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과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훌륭한 모범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최근년간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공장지도일꾼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생산과 기술발전, 후방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진행한 결과이라고 하시면서 일꾼들이 경제작전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짜고드는것은 대고조전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동약전기구공장은 나라의 약전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위치해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의 경제정책판찰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강동약전기구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초부터 강성대국건설의 최후돌격전을 몸소 진두지휘하시며 편일불변분류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오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뉘그러는 감사의 정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과 마음 다 바쳐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훌륭히 꾸려진 강동약전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훌륭히 꾸려진 강동약전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훌륭히 꾸려진 강동약전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훌륭히 꾸려진 강동약전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절세 위인들의 빛나는 불멸의 업적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8년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모스크바주 볼쇼이 예술 및 력사박물관과 두브나국제연합학 연구소 핵반응실습소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을 전시함회가, 《브네슈토프그롬》 유한책임회사와 포뮬회사에서는 영화감상회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전람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그리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갖는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과 군 장교들에게는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모리》가 상영되었다.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모스크바주 볼쇼이행정부 문화국장인 두브나국제연합학 연구소 핵반응실습소 부소장은 슬기롭고 용감하며 자주성이 강한 조선인민은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함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 《브네슈토프그롬》 유한책임회사 총사장과 포뮬회사 사장은 영화를 감상하고 축복가 퍼져오르는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위대한 명도자를 모신 조선인민의 더 행복하고 번영할 테일을 그려보았다.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위인적품목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펼쳐시는 선군정치에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승리만을 가져올것이며 근면한 조선인민은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8년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이란신문 《메헤란 타임스》 지난해 12월 13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명장 김정일》, 《김정숙녀사의 탄생 92돐》 등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신문은 글들에서 병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총만 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이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는데 대하여서와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으로 하여 조선의 현대력사에 별처럼 빛나는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혁명생애에 대하여 상세히 열거하였다.

만나신문 《포플러 저널》 지난해 12월 14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과 백두산녀장군의 사진을 모시고 웅근 한편 특집하였다.

신문은 《조선의 12월 24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919년 12월 24일은 김정일명도자를 모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날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특집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리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문은 1917년 12월 24일에 항일의 선렬적영웅이신 김정숙녀사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도함에 조국해방을 위한 무장투쟁에 참가하시어 백두산녀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신데 대하여,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은 또한 2008년 12월 24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박마케팅사업소를 찾으신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화를 지퍼주신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두》 지난해 12월 13일부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환호하는 군중에게 담배를 보내시

는 사진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적들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신데 대해 소개하였다.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 지난해 12월 24일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호하는 열병대에 담배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나라와 민족을 수호할수 있는 강령적 힘》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명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총책을 지니신것은 지금으로부터 18년전인 1919년 12월 24일이지만 그의 군령도는 사실상 50년전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으며 본래 군인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 세상의 관심을 돌리셨다. 이와 함께 동지에게 기초한 판별정치, 군중배방을 철저히 실천하고 전군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시였으며 본래가 당의 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었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었다. 그리고께서는 인민군대를 독특한 전략술로 든든히 무장시키

는것을 군력강화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으며 전군이 독창적인 전법과 현대적인 군사지식을 체득하여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하시었다.

신문은 1917년 12월 24일은 조선혁명에 특출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정숙녀사의 탄생일이라고 하면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압당하던 시기 희형의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어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머니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유하시였으며 새 조국건설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녀사께서는 아드님께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고결한 덕담과 뜨거운 인간애, 강인담담하고 굴할줄 모르는 담력과 배짱 등 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격과 자질을 깊이 심어주시었다. 녀사께서는 너무도 젊으신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였으나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라오스신문들인 《퐁람빠손라오》 지난해 12월 24일부와 《행안》 12월 1-15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사건을 모시고 그의 불멸의 선군명도업적과 백두산녀장군의 별처럼 빛나는 한생을 칭송하는 글들을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립장은 친선관계발전의 담보

새해공공사업에는 친선의 기치 높이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이것은 자주적인 대외활동은 적극 벌려 국제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함으로써 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친선도 자주성을 위하여 필요함있거나 자주적인 립장에서만 참다운 친선을 보장할수 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평등의 원칙에서 화목과 공동번영을 누리는 세계를 창조하려면 하나의 공통된 리듬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친선의 리듬이다.

화목을 도모하고 사이좋게 사는것은 인간의 미덕이다. 나라와 민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친선은 국제사회성원들의 단합과 화목의 원천이다.

친선은 참다운것으로 되어야 한다. 친선이 참다운것으로 될 때만이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참다운 친선은 자주적인 립장에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자주적인 립장은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립장이며 그 근본요구는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그것이 그 나라 인민의 자주적으로 승속시킬수 있으며 참다운 국제적친선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에서 남을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대국주의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면서 큰 나라, 발전된 나라들에 아무굴종하는 사대주의가 허용되면 나라들사이, 민족들사이에서 불평등과 불화가 생기고 참다운 친선이 이루어질수 없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다같이 독자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며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전통과 풍습, 감정과 방식을 기초하여 발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맺어지고 발전하여야 하며 그해야 참다운 친선을 이룩할수 있다.

자주적인 립장은 인민대중이 모든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며 참다운 국제적친선관계발전의 담보이다.

자주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려면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성을 척도하여 평가하고 처리하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맞게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남이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온갖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새해공공사업에서 천명된 친선의 기치 높이 나라들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사상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진보적인인민들에게 세계자주화위업의 정당성과 중국적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과 원칙은 확고부동하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적인 립장에서 참다운 국제적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6일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입었다. 폭설로 학교들이 수업이 중지되고 도로들이 마혀 수백명의 주민들이 한지에서 오도기도 못한 상태에 처하였다.

또한 철도와 비행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 물피해를 입었다. 물은 4일 현재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7만여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수천마리의 소들이 죽었으며 다리와 도로들이 파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 물피해를 입었다. 물은 4일 현재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7만여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수천마리의 소들이 죽었으며 다리와 도로들이 파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 물피해를 입었다. 물은 4일 현재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7만여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수천마리의 소들이 죽었으며 다리와 도로들이 파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 물피해를 입었다. 물은 4일 현재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7만여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수천마리의 소들이 죽었으며 다리와 도로들이 파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 물피해를 입었다. 물은 4일 현재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7만여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수천마리의 소들이 죽었으며 다리와 도로들이 파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조선인민의 투쟁에 큰대성을 보낸다

핀란드 단체 새해공동사설을 지지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하여 핀란드조선위원회가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의 새해공동사설 《당장전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영업과 농업에 박수를 가하여 국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는 김정일동지의 혁명명도함에 2010년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훌륭히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해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150일전투, 100일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수없이 창조하였다.

같이 공업업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전투력이 더욱 강화될수록 정치사상강군,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고있는 조선은 경제개발의 명마루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는 비약의 도약을 마련하게 되었다.

성명은 새해공동사설의 상세한 내용을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명도함에 조선인민이 올해 경영업과 농업을 비롯한 전반적경제 부문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이룩함으로써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여제끼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대조선경제정착을 버리고 남조선에서 당장 자기의 무력을 철수시킬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주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경제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단결된대성을 보낸다.

우리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명도함에 조선인민이 올해 경영업과 농업을 비롯한 전반적경제 부문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이룩함으로써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여제끼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대조선경제정착을 버리고 남조선에서 당장 자기의 무력을 철수시킬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주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경제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단결된대성을 보낸다.

우리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명도함에 조선인민이 올해 경영업과 농업을 비롯한 전반적경제 부문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이룩함으로써 2012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여제끼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대조선경제정착을 버리고 남조선에서 당장 자기의 무력을 철수시킬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주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경제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단결된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이란의 평화적 핵계획을 지지

따리키스탄대통령 에모달리 라흐몬이 4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평화적핵계획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핵문제는 대화와

경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했다. 적도기내대통령 오비양 느게 마브라코프가 최근 한 연설에서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사회경제분야에서 견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법기반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본사기자

경제장성

에리트레에서 지난해 경제가 4.7% 성장하였다. 정부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자체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 동원하여 전반적인 경제부문에서 생산을 늘임으로써 이러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한다.

우루과이과학기술발전위원회에서 우루과이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고리로 새로운 위성발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우루과이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고리로 새로운 위성발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경제장성 에리트레에서 지난해 경제가 4.7% 성장하였다. 정부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자체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 동원하여 전반적인 경제부문에서 생산을 늘임으로써 이러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한다.

우루과이과학기술발전위원회에서 우루과이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고리로 새로운 위성발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우루과이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고리로 새로운 위성발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이스라엘군의 폭압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동부와 남부지역에 탱크와 비행기를 들이밀어 로란과 미싸일들을 퍼부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동부와 남부지역에 탱크와 비행기를 들이밀어 로란과 미싸일들을 퍼부었다.

본사기자

폭설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6일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입었다. 폭설로 학교들이 수업이 중지되고 도로들이 마혀 수백명의 주민들이 한지에서 오도기도 못한 상태에 처하였다.

또한 철도와 비행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 물피해를 입었다. 물은 4일 현재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7만여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수천마리의 소들이 죽었으며 다리와 도로들이 파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본사기자

규탄 받는 미국

구바의무성이 5일 미국을 리행하는 구바공민들에 대한 기차회전에서 미국이 그러한 조치를 차별적인것으로 락인하고 그것은 구바에 대한 방해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것이라고 까발렸다.

그는 구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올려놓기 위한 미국의 주장들이 완전히 무근거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베네수엘라국방상이 5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 기도를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볼리비아의 군사기지를 파타카리브의 섬들을 리용하여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다고 까발렸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자들은 무자비한 반격을 받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리비아의외력관 국무제정 조지사카가 6일 자기 나라 주재 미국대사를 호출하여 미국

서방의 내정간섭을 단죄

이란의무장 마누체호르 마라피가 지난해 12월 29일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내정간섭행위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서방이 이란의 내부일에 참견하면서 이라크지

리비아의외력관 국무제정 조지사카가 6일 자기 나라 주재 미국대사를 호출하여 미국

본사기자

무기판매를 반대

중국의교부 대변인이 5일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반대하는 정공부의 립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대만문제와 티베트관련문제는 중국의 주권, 명도원정과 관련된 핵심문제이라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해적들의 란무장 — 소말리아해역

사람들은 아마 이전 쏘련에서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예술영화 《20세기의 해적들》을 보면서 해적들의 강도성과 포악성에 대하여 전율할것이었다. 그런데 영화의 장면들에서 다 볼수 있었던 그러한 잔악한 해적행위들이 21세기에 와서도 계속 재연되고있다.

본사기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침체 그 전달마다 각각 4.6%, 8.2%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실업자 증대

에스파냐에서 지난해 12월 실업자수가 5만 4 600명 더 늘어나 400만명에 달하였다. 5일 이 나라 정부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지진

베루의 중부와 북부해안지역에서 3일 리히터척도로 5.7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리마로부터 서북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다.

본사기자

날강도적인 영구강점기도

취해지면서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지역, 특히 동부루드스지역에 이주시키려고 하고있다. 1967-1990년기간에만도 이스라엘은 강제지역에 총 2만세대의 유대인살림집을 건설하였다. 램집중식수 그 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전략적요충지에 대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책동에 미칠듯이 애써달라고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뿐 아니라 정적으로 예민한 루드스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것은 루드스를 완전히 《유대화》하고 영구지배하려는 파렴치한 명도명정야망을 로물적으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기에는 평화회담개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팔레스타인인민의 독립국가건설노력을 과탄시키려는 이스라엘의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회담은 오래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문제이다. 팔레스타인지도자들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중지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그 어떤 평화회담도 진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대인 《정착촌》 확장중지여부는 이스라엘이 평화회담개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에서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일시

취해지면서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지역, 특히 동부루드스지역에 이주시키려고 하고있다. 1967-1990년기간에만도 이스라엘은 강제지역에 총 2만세대의 유대인살림집을 건설하였다. 램집중식수 그 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전략적요충지에 대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책동에 미칠듯이 애써달라고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뿐 아니라 정적으로 예민한 루드스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것은 루드스를 완전히 《유대화》하고 영구지배하려는 파렴치한 명도명정야망을 로물적으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기에는 평화회담개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팔레스타인인민의 독립국가건설노력을 과탄시키려는 이스라엘의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회담은 오래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문제이다. 팔레스타인지도자들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중지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그 어떤 평화회담도 진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대인 《정착촌》 확장중지여부는 이스라엘이 평화회담개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에서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일시

취해지면서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지역, 특히 동부루드스지역에 이주시키려고 하고있다. 1967-1990년기간에만도 이스라엘은 강제지역에 총 2만세대의 유대인살림집을 건설하였다. 램집중식수 그 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전략적요충지에 대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책동에 미칠듯이 애써달라고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뿐 아니라 정적으로 예민한 루드스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것은 루드스를 완전히 《유대화》하고 영구지배하려는 파렴치한 명도명정야망을 로물적으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기에는 평화회담개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팔레스타인인민의 독립국가건설노력을 과탄시키려는 이스라엘의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회담은 오래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문제이다. 팔레스타인지도자들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중지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그 어떤 평화회담도 진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대인 《정착촌》 확장중지여부는 이스라엘이 평화회담개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에서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일시

취해지면서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지역, 특히 동부루드스지역에 이주시키려고 하고있다. 1967-1990년기간에만도 이스라엘은 강제지역에 총 2만세대의 유대인살림집을 건설하였다. 램집중식수 그 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전략적요충지에 대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책동에 미칠듯이 애써달라고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뿐 아니라 정적으로 예민한 루드스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것은 루드스를 완전히 《유대화》하고 영구지배하려는 파렴치한 명도명정야망을 로물적으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기에는 평화회담개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팔레스타인인민의 독립국가건설노력을 과탄시키려는 이스라엘의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회담은 오래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문제이다. 팔레스타인지도자들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중지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그 어떤 평화회담도 진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대인 《정착촌》 확장중지여부는 이스라엘이 평화회담개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에서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일시

취해지면서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지역, 특히 동부루드스지역에 이주시키려고 하고있다. 1967-1990년기간에만도 이스라엘은 강제지역에 총 2만세대의 유대인살림집을 건설하였다. 램집중식수 그 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전략적요충지에 대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책동에 미칠듯이 애써달라고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뿐 아니라 정적으로 예민한 루드스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것은 루드스를 완전히 《유대화》하고 영구지배하려는 파렴치한 명도명정야망을 로물적으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기에는 평화회담개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팔레스타인인민의 독립국가건설노력을 과탄시키려는 이스라엘의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회담은 오래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문제이다. 팔레스타인지도자들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중지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그 어떤 평화회담도 진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대인 《정착촌》 확장중지여부는 이스라엘이 평화회담개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에서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일시

취해지면서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지역, 특히 동부루드스지역에 이주시키려고 하고있다. 1967-1990년기간에만도 이스라엘은 강제지역에 총 2만세대의 유대인살림집을 건설하였다. 램집중식수 그 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전략적요충지에 대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책동에 미칠듯이 애써달라고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뿐 아니라 정적으로 예민한 루드스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것은 루드스를 완전히 《유대화》하고 영구지배하려는 파렴치한 명도명정야망을 로물적으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기에는 평화회담개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팔레스타인인민의 독립국가건설노력을 과탄시키려는 이스라엘의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회담은 오래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문제이다. 팔레스타인지도자들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중지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그 어떤 평화회담도 진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대인 《정착촌》 확장중지여부는 이스라엘이 평화회담개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에서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일시

취해지면서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지역, 특히 동부루드스지역에 이주시키려고 하고있다. 1967-1990년기간에만도 이스라엘은 강제지역에 총 2만세대의 유대인살림집을 건설하였다. 램집중식수 그 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전략적요충지에 대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책동에 미칠듯이 애써달라고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뿐 아니라 정적으로 예민한 루드스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것은 루드스를 완전히 《유대화》하고 영구지배하려는 파렴치한 명도명정야망을 로물적으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기에는 평화회담개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팔레스타인인민의 독립국가건설노력을 과탄시키려는 이스라엘의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회담은 오래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문제이다. 팔레스타인지도자들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중지될 때까지 이스라엘과 그 어떤 평화회담도 진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대인 《정착촌》 확장중지여부는 이스라엘이 평화회담개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에서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일시

취해지면서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유대인들을 강제지역, 특히 동부루드스지역에 이주시키려고 하고있다. 1967-1990년기간에만도 이스라엘은 강제지역에 총 2만세대의 유대인살림집을 건설하였다. 램집중식수 그 건설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전략적요충지에 대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책동에 미칠듯이 애써달라고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뿐 아니라 정적으로 예민한 루드스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는것은 루드스를 완전히 《유대화》하고 영구지배하려는 파렴치한 명도명정야망을 로물적으로 드러내보인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기에는 평화회담개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팔레스타인인민의 독립국가건설노력을 과탄시키려는 이스라엘의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회담은 오래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문제이다. 팔레스타인지도자들은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완전히